3년의 기다림

신지애 유럽투어 우승

함평 골프고 출신 신지애(28·스리본드)가 유럽여자프로골프 투어(LET) RACV 레이디스 마스터스(총상금 25만 유로) 우승을 차지했다.

신지애는 28일 호주 골드코스트의 RACV 로열 파인스 리조트(파73·6445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4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78타의 성적을 낸 신지애는 11언더파 281타를 기록한 단독 2위 홀리 클라이번(잉글랜드)을 3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LET와 호주여자프로골프(ALPG)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신지애는 13번 홀(파4)까지 카밀라 렌나르트(스웨덴)와 공동 선두를 달렸다.

그러나 렌나르트가 14번 홀(파3)에서 한 타를 잃었고 신지애는 15, 16번 홀에서 연속 버디로 3타 차를 만들며 승기를 잡았다.

1타 차 단독 선두였던 신지애는 15번 홀(파5)에서 먼저 약 3m 버디 퍼트에 성공, 2타 차로 달아났고 반면 렌나르트는 비슷한 거리의 버디 퍼트를 놓치면서 추격할 힘을 잃었다.

기세가 오른 신지애는 16번 홀(파3)에서도 티샷을 홀 3m 정도 거리에 붙이면서 한 타를 더 줄여 사실상 렌나르트의 추격을 뿌리쳤다.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한 것은 2006년 양희영(27·PNS)이 아마추어 자격으로 출전해 1위를 차지한 이후 올해 신지애가 10년 만이다.

이후 한국 선수들은 2007년 신지애를 시작으로 2008년 신현주, 2009년 유소연, 2010년 이보미, 2012년 김하늘과 유소연, 2013년 최운정 등 준우승만 하다가 올해 신지애가 한국 선수들의 '준우승 징크스'를 깼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는 호주교포 오수현이 우승했으나 호주 국적의 선수였다.

신지애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11승,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21승을 거뒀고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는 12승을 기록 중이다.

앞서 신지애는 2008년과 2012년 브리티시 여자오픈, 2010년 에비앙 마스터스 등 메이저 대회 또는 LPGA 투어가 LET와 공동 주관한 대회에서 우승했던 신지애가 LET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지애는 3월3일 개막하는 JLPGA 투어 2016시즌을 준비한다.

아마추어 최혜진이 8언더파 284타로 공동 5위, 이소영은 4언더파 288타를 기록해 11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봅슬레이 원윤종-서영우

스켈레톤 윤성빈

올림픽 金 꿈이 영근다

봅슬레이 원윤종-서영우조 金 '세계 1위'…스켈레톤 윤성빈 銀

월드컵 8차대회

봅슬레이의 원윤종(31·강원도청)-서영우(25·경기도BS경기연맹) 조가 다시 한번 월드컵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원윤종-서영우 조는 28일 독일 퀘닉세에서 열린 2016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월드컵 8차 대회에서 1, 2차 시기 합계 1분39초50으로 1위를 차지했다. 1차 시기에서 49초59로 1위에 오른 뒤 2차 시기에서 49초91로 2위에 올랐지만 합계로는 선두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다.

은메달과 동메달은 각각 스위스, 독일팀에 돌아갔다. 김동현-김진수 조는 1, 2차 합계 1분40초53초로 18위에 올랐다.

특히 이날은 원윤종의 드라이빙 기술이 빛났다. 지난해 12월 같은 독일 퀘닉세에서 열린 월드컵 3차 대회에서 6위에 오른 뒤 원윤종은 "트랙 공략법을 깨달은 것 같다"며 "8차 월드컵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안방에서 치러진 이번 대회에 3개 팀을 내보내며 자신감을 보인 독일 대표팀은 한국에 금메달을 빼앗기며 자존심을 구겼다. 독일 대표팀의 프리드리히 프란체스코가 1차 시기 후 썰매를 발로 차는 등 화를 삭히지 못하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잡히기도 했다.

원윤종-서영우는 이번 금메달 획득으로 세계랭킹 1위를 지키며 올 시즌을 마감했다. 두 선수는 올 시즌8번의 월드컵에서 금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땄다. '올림픽 모의고사'로 불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7위에 올랐다.

월드컵 8차대회에서 메달을 딴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팀 윤성빈(왼쪽부터), 원윤종, 서영우. /연합뉴스

스켈레톤의 윤성빈(22·한국체대)은 다시 한번 은메달을 따면서 올 시즌을 세계랭킹 2위로 마감했다.

윤성빈은 지난 27일 열린 월드컵 8차 대회에서 1, 2차 시기 합계 1분41초38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금메달은 이번에도 '스켈레톤의 우사인 볼트'로 불리는 마르틴스 두쿠르스(32·라트비아) 차지였다. 그는 1분40초82를 기록했다. 윤성빈은 1차 시기에서 50초94로 마르틴스 두쿠르스(50초49)와 그의 형인 토마스 두쿠르스(50초84)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2차 시기에서는 50초44를 기록, 마르틴스 두쿠르스(50초33)에 이은 2위에 올랐다. 1, 2차 시기 합계에서도 토마스 두쿠르스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주목할 점은 윤성빈의 1, 2차 시기 스타트 기록이 각각 4초63, 4초59로 모두 1위였다는 것이다. 스타트 능력이 탁월한 윤성빈은 드라이빙 실력만 향상시키면 두쿠르스의 벽도 허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윤성빈은 올 시즌 8차례의 월드컵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땄다. '올림픽 모의고사'로 불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연합뉴스

손연재 월드컵 銀 개인 최고점 경신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2·연세대)가 모스크바 그랑프리에 이어 에스포 월드컵까지 올 시즌 첫 두 국제대회에서 모두 개인종합 은메달을 수확하며 올림픽 전망에 청신호를 보냈다.

손연재는 27일(이하 현지시간) 핀란드 수도 헬싱키 인근 도시 에스포의 에스포 메트로 아레나에서 열린 국제체조연맹(FIG) 리듬체조 월드컵 개인종합 둘째 날 리본에서 18.400점, 곤봉에서 18.400점을 받았다. 전날 볼에서 18.350점, 후프에서 18.400점을 받는 등 고른 기량을 선보인 손연재는 합계 73.550점으로 알렉산드라 솔다토바(73.750점·러시아)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주에 열린 올 시즌 첫 국제대회인 '2016 모스크바 그랑프리'에서 72.964점(후프 18.066점, 볼 18.366점, 곤봉 18.366점, 리본 18.166점)으로 개인 최고점을 경신한 손연재는 한 주 만에 개인 최고점을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했다.

더불어 사실상 '미리 보는 리우 올림픽'으로 평가받은 이번 대회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일궈내며 자신감을 키웠다. 이번 대회는 '러시아의 신성' 솔다토바가 출전했지만 부동의 세계 1위 야나 쿠드랍체바와 강력한 2인자 마르가리타 마문 등 러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투톱'이 출전하지 않았다. 관심은 손연재가 가장 강력한 올림픽 경쟁자 중 한 명인

우크라이나의 에이스 간나 리자트디노바와의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였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손연재는 리우 올림픽의 동메달 경쟁자인 리자트디노바(73.250점)와 스타뉴타(73.100점)를 각각 3위, 4위로 한꺼번에 밀어내며 올림픽 전망을 밝혔다.

손연재는 이날 리본과 곤봉에서 모두 FIG 공인 대회 기준으로 개인 최고점을 찍었다. 종전에 기록한 리본과 곤봉 최고 점수는 지난해 8월 소피아 월드컵 때의 18.300점, 18.350점이었다. FIG 비공인 대회로 범위를 넓혀도 손연재가 리본에서 기록한 18.400점은 개인 최고 기록이다. 곤봉(18.400점)은 2013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 기록과 같다.

전날 후프에서도 18.400점을 기록하며 FIG 공인 대회 기준으로 개인 최고점을 갈아치운 손연재는 이번 대회에서만 3종목에서 기록을 새로 쓰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광주 FC 유스팀 금호고, 백운기 축구 우승

프로축구 광주 FC의 미래 꿈나무들이 트로피 수집에 나섰다.

광주 FC의 고교 유스팀인 금호고(U-18)가 28일 광양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백운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결승전에서 강릉제일고를 4-1로 꺾고, 전국 고교 축구 정상에 올랐다.

금호고는 전국 축구 명문고 35개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 16강전에서 경기 포천양지FC를 3-0으로 꺾으며 첫 승리를 신고했고, 8강에서는 서울 중도고(1-0)를 4강에서는 서울 영등포공고(2-0)를 꺾으며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서도 단 한 골만을 허용하면서 우승까지 1실점만 기록했다.

지난 2012년에 이어 다시 대회 정상을 밟은 금호고는 개인상도 휩쓸었다. 우승을 지휘한 최수용 감독이 최우수감독상을 받았고, 최우수코치상(신상훈), 최우수선수상(이희균), 수비상(강지원), GK상(김태곤), 베스트영플레이어상(오석진)을 쓸어담았다.

U-12(자체운영)팀도 금석배 전국초등학생축구대회에서 준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지난 2013년 창단된 광주 U-12의 첫 전국대회 트로피다. 강호 서울 U-12와의 결승에서 0-2로 석패했지만, 대회 예선에서 결승까지 총 8경기 27골 6실점을 기록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광주 FC 유스팀인 금호고가 28일 광양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백운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결승에서 강릉제일고를 4-1로 꺾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FC 제공〉

창단 첫 전국 준우승을 이끈 박창석 감독은 우수 감독상을 수상했다. 지도자상(양두희), 우수선수상(문민서), 최다득점상(서현호), 페어플레이상(이종은)도 가져왔다.

광주 기영옥 단장은 "12, 15, 18세 유소년들은 광주 축구의 근간이자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라며 "체계적인 유소년 육성을 통해 미래 광주 축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항상 같은 멤버…북한전 승리 자신"

윤덕여호, 오늘 올림픽 女축구 亞 최종예선 1차전

"2013년부터 계속 같은 선수들이 같은 포지션으로 나오고 있다. 대응할 준비가 잘 돼 있다."

역대 첫 올림픽 여자축구 본선진출의 대업을 준비하는 윤덕여 여자 축구대표팀 감독이 '난적' 북한과 2016 리우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1차전을 앞두고 '필승'을 외쳤다.

윤 감독은 28일 일본 오사카의 아고라 리젠시 호텔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대회 준비는 이미 국내 훈련에서 끝냈다"며 "북한과 첫 경기 결과가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준비한 것을 제대로 펼쳐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29일 오후 7시30분 일본 오사카의 얀마 스타디움에서 북한과 풀리그 1차전을 치른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위인 북한은 일본(랭킹 4위)과 함께 올림픽 본선 진출이 가장 유력한 주인공으로 꼽히고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2년 런던 올림픽 본선 진출을 이뤄낸 북한은 이번에 3연속 올림픽 출전에 도전한다.

윤 감독은 첫 경기 준비 상황에 대해 "북한과 매년 경기를 치르는 것 같다"고 웃음을 지은 뒤 "2013년부터 거의 똑같은 선수들이 똑같은 포지션으로 나서고 있다. 그에 대응하는 전술 변화를 준비했다.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전술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초반 실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감독은 "북한은 조직력과 체력이 뛰어나서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많다. 초반에 실점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선수들에게 강조했다. 더불어 북한의 초반 공세를 막을 수 있는 전술도 준비했다"며 "상대가 강하게 밀고 나오겠지만 그런 상황을 잘 극복해서 우리 의도대로 경기를 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감독은 "북한은 우리 수비진의 뒷공간을 노리는 긴 패스도 자주 구사한다. 상대가 힘이 있는 만큼 미드필드 진영에서 기동성 있게 맞서야 한다"며 "우리 공격진도 득점력을 갖춘 만큼 좋은 경기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